

‘월곡동 고려인마을’ 새 역사탐방 명소로 급부상

국내 유일 ‘고려인 전문 전시관’ 다양한 기획·전시 전국서 발길 소장 유물 1만2000여점...세계시민문화한마당 등 이색 축제도

세계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새로운 역사탐방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문을 연 ‘월곡고려인문화관’ 방문객은 지난 10월 기준 누적 3029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월 평균 500~600명이 찾아오고 있다.

광산구가 주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조성한 고려인문화관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의 ‘고려인 전문 전시관’이다.

소장 유물만 1만 2000여 점에 이른다.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는 물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인의 삶과 문화, 역사를 품고 있다.

광산구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기획·전시 등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맞아 개최한 ‘홍범도 장군 특별전’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시는 홍범도 장군의 손주 예 까찌리나가 쓴 유해 봉환 요청서, 홍범도 장군이 가족과 찍은 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역사 자료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지난 3일부터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1991년 광주·전남지역 개인과 단체가 힘을 모아 옛 소련 6개 고려인 집성촌에 세운 광주한글학교는 고려인 동포와 광주의 오래된 인연을 증명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한글학교다.

내년 4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현신한 이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 신문, 서적 등 3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인문화관은 지역 주민의 활동 거점 역할도 맡고 있다.

월곡동 주민들은 직접 ‘마을 해설사’로 나서 방문객의 관람 편의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맞춤형 해설,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도 통·번역 지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내년에는 광산구 문화관 광해설사도 상시 배치될 예정이다.

고려인문화관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광산구는 많은 외국인 주민이 모여 사는 특색을 지역 활성화의 매개로 삼기 위한 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운남근린공원에서 열린 2021세계시민문화한마당은 지역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펼치는 새로운 축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 11개 전통의상을 선보인 패션쇼, 세계전래놀이경기대회, 세계보물장터 등 ‘광주 안의 지구촌’다운 다채롭고 화려한 볼거리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일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열린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기획전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월곡톡’ 플랫폼 서비스 등 장비 없는 소통을 지원하며 상생과 화합의 공동체 역량을 다지고 있다.

특히 월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다른 곳에는 없는 광산구만의 매력 요소를 결합해 지역경제와 관광의 도약을 노리는 ‘야심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어울림 문화플랫폼, 나눔하우스, 테마마을 조성 등

이 추진된다. 지난달 말에는 ‘찾고 싶은 월곡’ 만들기 일환으로 글로벌 한마을 문화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수많은 외국인주민이 모여 사는 월곡동은 광산구를 ‘대한민국 온리 원’으로 만들어 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문화공간 확충’ 청소년 목소리 2021 신창동 마을의제로 선정

“옆 동네엔 문화시설이 많은데, 우리 동네는 놀 곳이 없어요.”

마을에서 놀고 즐기고 싶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고민하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앞으로 추진할 신창동의 마을의제로 선정됐다.

광산구 신창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정희)는 지난 4월 ‘2021 신창동 청소년 총회’를 개최하고, 문화공간 확충 등이 핵심인 ‘신창동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란 이름으로 활동한 신창동 청소년들은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마을문제를 고민한 끝에 총 5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했다. 신창동에 있는 4개 중·고등학교가 사전투표를 실시했는데, 문화공간 확충 등을 담은 ‘신창동 살리기 프로젝트’가 1위를 차지했다.

마을 안에는 문화공간이 없어 수원동, 침당 등 인근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주는 청소년의 의지와 바람이 모인 결과물이라는 게 신창동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를 제안한 청소년들은 “마을에 있는 공터 등을 활용해 청소년, 청년을 위한 문화 거점을 확보한다면 신창동을 찾는 사람도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목소리에 신창동 마을 주민도 적극 화답했다. 신창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청소년 총회 결과를 2022년 마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내년 주민총회 마을의제로 발전 시켜 청소년과 청년이 즐거운 신창동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청소년 총회에 참석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 주역인 우리 청소년이 지역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미래전략산업·신성장 동력 예산 확보 쾌거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영산강 Y프로젝트 관련 등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022년 예산 국회에서 광주 미래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권 대형 연구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엔 정부에서 2022년 예산 전 막판까지 난색을 표명했던 광주시의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비 10억원 확보를 이끌어 내는 독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계속사업을 위해 666억원원을 반영하고 허브-스포크 기반 융합 뇌연구 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해 15억원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 밖에에도 전국 특화 인공지능 교육예산 42억원, K-Health & 민의료 & AI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비 80억원,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혁신밸리 육성사업 22억원, 디지털트

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의 예산 반영을 이끌었으며, 새로운 산업 동력이 될 공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 정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42억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20억원원을 2022년 정부안으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 확보와 함께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유지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960억원 규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기술개발사업이 과기정통부 기술성 심사를 거쳐 2021년 3차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돼 내년 5월 말 본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서 “예타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역 내 잠재기에 있는 백색가전 산업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영산강 포럼을 비롯한 영산강·황룡강의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엮어 광주 서남권 발전을 견인해 낼 Y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단 내년도 국비예산에 빛고를 영산강 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2억원과 영산강 주민친수공간 보강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확보한 내년도 지역구 예산은 ▲광주 송정역사 증축사업 100억원 ▲광산구 제1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17억원 ▲연산지구 배수개선사업 20억원 ▲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2억원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사업 10억원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원 ▲월곡테크니즈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빛그린 산단 내 노사동반지원센터 건립 90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15억원 ▲도산동 대로 2-19호선 도로개설 18억원원 등이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미래산업 활성화와 광주 서남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찾고 싶은 광주, 시민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산구, 효율적 업무수행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발간

광주 광산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다양한 갈등관리 방법 안내를 통해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책자는 크게 ▲공직자 공공갈등 인식조사 ▲광산구 갈등관리 체계 ▲갈등관리 절차 및 기법 갈등 해결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광산구는 앞서 장륙읍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에도 주민합의를 끌어내는 등 성공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협치과 갈등관리팀을 신설하고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갈등 사전진단,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자 교육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김장체험키트 지원 드림스타트 94가구 대상

광주 광산구는 “드림스타트 94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온가족 김장GO(고)! 행복하GO(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각 가정에 김장체험키트(절임 배추, 김장양념)를 배송하고, 김치 담그기 안내문과 동영상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올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12가구에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올해로 3년째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